

Do not weep for me, but for yourselves and for your children.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성심 성가대

3

주 제:	“새생명”	“예수 부활 대축일”	2008년 3월 23일
복음 묵상:	요한 20,1-9	사도 10,34 ㄱ. 37-43	콜로 3,1-4

자기만 살려고 남을 죽이는 사람은 남과 자기를 동시에 죽이지만, 남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남과 자신을 동시에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자기 비움을 통해 이기심이란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느님 중심적이요 타인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 때 우리는 계란을 주고받습니다. 껍질 속에 갇힌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면 닭으로서 새 생명을 살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껍질이 바로 병아리의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껍질이 싸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하느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서가 제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자기 중심적이요 이기적인 마음을 비운 사람입니다. 이기적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죽을 때에만 하느님 중심이요 타인 중심적인 큰 사람이 탄생합니다. 이기적인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질 때에만 부활한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 김민수 디모테오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성가대 소식

A. **성 목요일 (저녁 7시 30)**: ▷ 최후의 만찬
▷ 발 씻김 예절 ▷ 예수님 게세마니 기도(성시간),
우리도 이 때에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체 조배 등에 참여합니다.



B. **성 금요일 (저녁 7시 30)**: 이날은 연중 유일하게 미사가 없습니다. 다만 기념 예절이 거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극심한 채찍질 당하심과 함께 죽음의 골고타 언덕으로 끌려가시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를 위하여 단식과 금육을 하며, 아침 아홉시부터 낮 세시에 운명하시기 까지 예수님께서 "일곱 마디"의 말씀을 주신 것 역시 최후의 만찬에 의거하여 깊은 묵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架上 七言

-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루가 23 : 34)
-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 가게 될 것이다."(루가 23 : 43)
-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 : 26-27)
-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번역하면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태오 27 : 46).
- "목마르다" (요한 19 : 28)
- "다 이루었다" (요한 19 : 30)
-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누가 23 : 46)

B. **성 토요일 (저녁 9시 00)**: 부활성야 미사 및 세례식

모든 성가대 가족님들은 전례 시작 1시간 전까지 연습실에서 연습에 시간 엄수 참석 바랍니다.

기도 요청

- 최 주남 예로니모 형제님과 최효원 도미니카 자매님 부부 ; 3/14 일부터 3/30 일 예정으로 유럽 성지 순례중에 있습니다. 성지 순례중 주님과 만나 좋은 시간 가지시고 건강히 돌아 오시길 기도합니다.
- 안 영희 세실리아 자매님 5월 귀국 예정으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여행 중에 주님 함께 하시어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지난 일요일(3/9) 김효식(필립보 네리)형제님의 막내 지원(스레파노)가 San Francisco Symphony Youth Orchestra 주최한 Concerto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참석한 치열했던 2 주에 걸친 경연대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가 우승을 하였으며, 이로써 오는 11 월 9 일 (일요일) 오후 2 시에 음악가들이 꿈에 그리는 San Francisco 의 Davies Symphony Hall 에서 바이올린 솔리스트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대 가족들을 모두 초청하였습니다.

+ 복음 [요한 20,1-9]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 예수님의 얼굴을 찼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1분 명상

‘어느 할아버지의 임종’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깨어 있는 좋은 복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할아버지의 임종이 생각납니다.

어느 월요일 정오 무렵, 병자성사를 청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알려준 아파트 주소대로 물어 물어 찾아가서 서둘러 병자성사를 집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평온하게 주무시듯 임종을 맞으셨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시아버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던 며느리가 전해준 이야기는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식구들에게 얼굴 한 번 찡그리는 일 없이 늘 기쁜 모습이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프신 적도 없고 건강하셨는데, 돌아가시던 날도 늘 하던 대로 아침기도를 바치고 식사도 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며느리를 부르시며 “얘야, 아무래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하시며 자리에 누우시겠다고 하시며 자리를 깔아드렸다는 것입니다. 본당 신부님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하시며 전화를 했는데 되지를 않아 또 다른 본당에도 연락을 해보고 하다가 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래도 신부님은 못 보고 바로 주님께 가야겠다고 하시며 잠자듯 눈을 감으셨답니다.

오래 전에 보았던 영화에서 한 유대인 의사를 도와주었다는 죄목으로 적군 장교로부터 총살을 당하기 전 보좌신부에게 남긴 본당신부의 마지막 대사가 생각납니다.

“어떻게 죽느냐 보다는 어떻게 잘 살아왔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